

극심한 '내홍'... 혼돈의 새정치

박영선 탈당說·분당 위기... 정계개편 가능성
광주·전남 지역민들 실망 넘어 절망의 '한숨'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두 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협의가 거부당 한데 이어 외부 비대위원장 선임마저 물거품이 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설과 함께 분당에 따른 정계개편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한 혁신은 실종되고 내부 분란만이 난무하는 새정치연합의 현실에 광주·전남 민심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극심한 혼란 양상을 나타냈다.

전날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파동 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며 "내가 이 수모를 겪고 뭐 하러 더 있느냐. 쫓겨 나가느니 내가 나가겠다"는 격앙된 심경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 사퇴'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 '긴급 의원 모임'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어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고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들도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당내 혼란 상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중도와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민집모)도 이날 회동을 갖고 "박 원내대표가 조속히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내용은 조만간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뒤,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제2의 내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갈등 국면이 수습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당내 내분이 수습된다 해도 당내 노선을 두고 진보와 중도 진영이 대립하고 당권을 둘러싼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어 당의 정상화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박 원내대표의 탈당을 전제로 한 야당 분당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많다"며 "정계개편의 촉발은 야당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내용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민심은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차라리 분당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고립 속에서 선거 때마다 지지를 보내왔던 호남 유권자를 생각해서라도 새정치연합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연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잠적 '탈당설'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휴대전화를 끄고 이를째 '잠행'하며 거취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박 위원장. /연합뉴스



당번 회의실 사면초가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공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비엔날레재단·문화재단·시립미술관 '광주 3대 문화수장' 지역주의·보은인사 벗어나 문화마인드 갖춘 '전문가'로

지역 예술인들 한목소리

공석인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의 3대 문화기관 수장에 대한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뜨겁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3대 문화기관의 수장 선임은 운장현 광주시장의 '문화 마인드'를 시험하고, 민선 6기 문화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은 올해 20주년이 된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지역 공립미술관 중 가장 오래된 광주시립미술관을 원점에서 놓고 살펴면서 '변화'의 기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지역 미술인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국내 전문가들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미술계의 위상과 체면을 위해 '지역'에 머무르기 보다는 실질적인 행정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자리'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윤 시장이 선거기간 자신을 도운 인사들에 대한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지역 인사들의 '자리 욕심'과 파벌 문화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걱정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업작가협회 장현우 기획실장은 "지역 내 특정 인맥만 편향되게 활용하고 커넥션해서 지원하는 행태를 슬하 게 봐왔다"며 "이들 기관은 전문성도 없이 사욕만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서 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젊은 예술가 100여 명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미술기관의 수장은 국제적인 감각과 네트워크는 물론 행정과의 조율력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확신을 재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주 내에 공고를 내고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992년 개관 이후 공무원이 임명됐던 1, 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미술 작가들이 관직을 맡아왔다. 표면적으로는 공모 형식으로 관장을 선임했지만 사실상 시장의 입김에 따라 관장이 임명돼 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광주문화재단도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5일부터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 중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이나 향후 재단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9시 등교' 검토

"초중고 교장 의견 수렴"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제주·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9시 등교 정책'이 추진되면서 광주시교육청도 '9시 등교'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와 고3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교육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성영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에 이어 제주·강원 등도 9시 등교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에서도 학부모·학생·교사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의 실정에

맞는 등교시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교장단협의회를 통해 초·중·고 교장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한 뒤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교장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교육청처럼 '9시 등교, 9시20분 1교시'안이나, 강원 교육청처럼 '9시 1교시'안 등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여론을 듣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전후, 고등학교 1·2학년은 오전 8시, 고3은 오전 7시40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한센인촌 나주 현애원의 비극
축사 화재로 큰 피해 대책 호소 ▶6면
인천아시안게임 D-3
류종일 야구감독 "전승 금메달" ▶18면

NEW
수분감신기능성
사용유아용인버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율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비교 실험: 건조 피부 갈색 솔잎 추출물 30도 30초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비수분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2. 윤기가 더해져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비탄력	탄력감이 늘어났다	99%
3. 단약이 자물라 탱탱해진다	98%	*비탄력	탄력감이 늘어났다	99%

한국아미노산, 나뭇잎에서 추출한 사포닌, 아미노산, 비타민(www.apms.co.kr)에서 정보를 만나주세요. *고객상담실 (062-623-9254)